

북일협약, 북한 국내의 견해는? 비즈니스 찬스의 기대 가득 (이시마루 지로)

정권은 무역재개 준비지시...실패 예측하는 목소리도

5월 29일 발표된 북일합의문. 2002년 평양선언에 의거,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 내의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일본사회의 관심사는 오로지 납치피해자의 안부다. 북한 사람들은 납치문제, 북일협약의 행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북한 주민 4명,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관계자 3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외부세계와의 문을 굳게 잠근 북한 내부에서, 일본인 납치사건은 사람들에게 있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북한 사람들을 취재해 온 필자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서민의 대부분은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북한 정권이 제대로 된 설명도 보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인 납치에 대한 북한의 평균적인 인식수준은, '과거에 공작기관이 데려온 일본인이 있고, 그들을 돌려 보낼지 말지 옥신각신하고 있다'라는 정도다.

필자가 '여중생을 배로 납치해 간 사건이 있었고, 김정일 총서기가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설명하면, 충격을 받는 사람이 최근까지도 있다. 납치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정권은 자국민도 수용소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니까 일본인을 납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불쌍하게...'라고 납득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많다.

당 및 행정간부, 중국에 나오는 무역관계자 등 지위나 직업상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거 교섭에서 우리 쪽이 납치 피해자의 안부 정보를 숨겨서 시끄러웠다. 일본측이 경제제재를 했기 때문에 결렬됐다'라는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들 상층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북일관계의 진전을 실리적 손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작년 1월 중국에서 만난 무역관계자는 '일본인 납치는 이제 세계에 완전히 알려진 문제다. 잃을 것이 없다. 고작 십 수명이니, 빨리 일본에 돌려보내 국교정상화로 나아가 배상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기대하는 무역 관계자

북일합의문 발표 이후에 취재한 북한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중국에 나와있는 무역관계자들은 실리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온다. 6월

초순, 중국에 출장으로 나온 북한 상사원의 말.

"지금 평양의 분위기는 일본과 납치문제를 빨리 타결해 비즈니스 찬스를 넓혀야 한다는 것. 조선은 광물자원과 수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중국인에게 팔 수밖에 없으니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팔아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납치문제로 합의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이 재개되고 남포와 원산으로 일본의 중고제품이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소문이 장사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제품은 일본제품과의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북부지역의 상인)

남포는 서해안, 원산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다. 경제제재로 무역이 단절되기 전, 일본에서 대량의 중고자동차와 전자제품, 자전거 등이 수입 되는 거점이었다. 경제제재가 완화되는 것으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

6 월 말, 평양에서 중국으로 나온 무역관계자는 아시아프레스 중국인 멤버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양의 중앙당이 일본과의 무역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 중 10%를 일본에 돌린다는 것이 상부의 방침으로, 모든 상사에 닦달하고 있다. 일본에서 팔리는 아이템은 희귀 금속, 석탄, 해산물이다. 모든 무역회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경제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바이어를 잡는 것은 경쟁이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또한 이 상사원은 평양에서 들었다면서 "동북부의 청진시와 나선시가 해산물의 대일본 무역 거점으로 개방된다는 정보도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상사원은 중국인 아시아프레스 멤버에게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개를 거듭 요청했다.

◇'북일교섭은 실패한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납치문제를 해결해 배상(식민지배)을 받자는 속셈이지만 어차피 지난번처럼 옥신각신해 잘 되지 않을 것'

이렇게 비관적으로 북일교섭의 실패를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 월 중순에 통화한,

북부 양강도에 사는 행정기관 직원의 의견이다. 북일관계의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그가 회담의 실패를 예측하는 이유는 자국의 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김정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정권이 한다 한 것이 뭔가 잘 된 것이 있었는가?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안될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결국 좌절, '강성대국을 건설한다' '외국투자를 들여 온다' '식량배급을 준다' '생활을 향상시킨다'...이런 '공약'은 모두 깨졌다.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권력자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 머저리다. 만일 잘 되기 시작해도, 도중에 남쪽이나 미국이 방해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말한다.

납치문제의 재조사에 관한 북일협의를 아직 시작단계다. 그런데도 북한 내부에서는 북일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 지난달 말 중국으로 나온 무역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도 납치문제를 진전시키고 싶어서 적극적이지만, 조선이야말로 빨리 하고 싶어 초조해하고 있다고 본다. 외화사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시아프레스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북한 내부에 투입해 통화하고 있다.

*사진설명

가가와현 사카이데시(市) 출신이라는 일본인 여성. 재일조선인 남편은 사망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 81 세라고 말했다. 어두운 방에 장판이 벗겨져 콘크리트가 보인다. 상당히 곤궁해 보인다. 2010년 6월 평안남도. 촬영 김동철 (아시아프레스)

원산항에 계류돼 있는 만경봉호. 2011년 6월 촬영 박영민 (아시아프레스)